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2월 11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3장 13-17절

설교제목 :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드디어 예수님의 세례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마치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과 같은 성격과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식을 통해서 그가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13절)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물세례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즉 죄를 씻는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14절)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요한에게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15절) 참고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죄인들과 같이 낮추시고, 죄인들과 함께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죄인들과의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마20:28)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거리를 두면 안됩니다.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죄인과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위한 섬김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서막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섬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려면, 진정으로 섬기는 자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죄없는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신앙은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진정으로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세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되심을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16절) 하늘이 열림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하늘이 열림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뜻인데, 계시는 곧 구원입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계시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습니다.(16절) 성경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가령, 천지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성막을 만드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림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더불어, 구약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수행하실 새로운 구원이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소

리는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이 조합된 말씀입니다. 먼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구약 성경 시편 2:7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42:1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란 말씀은 시편 2:7과 이사야서 40:1이 결합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하는 장면을 묘사한 시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 등극시입니다. 따라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란,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 혹은 메시아로 등극하는 임명식이 거행 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이란 뜻의 히브리어가 ‘아들’ 혹은 ‘딸’과 결합하면 ‘유일한’이란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16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의 참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혹은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독특한 종류의 아들 또는 하나밖에 없는 종류의 특별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에 담겨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이사야 42:1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42:1은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 이어지는 소위 고난 받는 야웨의 종에 대한 첫 구절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이사야 42:1의 야웨의 고난 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 울려 퍼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고난 받는 종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란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그 결과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창조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이 땅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 확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고 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자신과 사명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요한의 회개와 물세례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 땅에 증명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계승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땅을 섬기는 자로 살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자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역원들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